

■ 주요 뉴스: 미국 금융시장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연내 금리인하 기대 확산

-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, 2월 연준의 0.25%p 인상을 지지
-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충분한 금리인상으로 물가 목표 달성할 필요
- 일본은행 설문조사, '22년 4/4분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 상승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1.3%], 달러화 강보합[+0.0%], 금리 하락[-8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전망 등이 배경
유로 Stoxx600지수는 소매업 관련주 강세 등으로 0.4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'22년 12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경계감 등이 영향
유로화가치는 0.2% 상승, 엔화는 0.1% 절하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폭 축소 기대 등이 반영
독일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예상 등으로 10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41.2원, -5.0원) 0.3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1/11일	1/10일	전일대비			1/11일	1/1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69.6	3,919.3	1.28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4%	3.62%	-8bp
	유럽	447.41	445.71	0.38%		독일	2.20%	2.31%	-10bp
	중국	3,161.8	3,169.5	-0.24%		영국	3.41%	3.56%	-15bp
	일본	26,446	26,176	1.03%	CDS 5y	한국	45bp	47bp	-2bp
	한국	2,359.5	2,351.3	0.35%		중국	56bp	60bp	-4bp
환율	달러지수	103.24	103.24	0.01%	위험 지표	EMBI+	-	387	-
	유로화	1.0757	1.0733	0.22%		VIX	21.09	20.58	2.48%
	엔화	132.45	132.26	-0.14%		WTI유	77.41	75.12	3.05%
	위안화	6.7650	6.7795	0.21%	원자재	구리	417.8	407.8	2.46%
	원화	1,246.2	1,244.7	-0.12%		금	1,875.7	1,877.0	-0.0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금융시장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연내 금리인하 기대 확산

- 연준 파월 의장 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은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 피력. 특히 향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연내에 금리인하는 없다고 주장
-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년에 정책금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연말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증가. 단기 자금시장에도 연방기금금리 목표가 4.9% 수준까지 상승한 후 연말에는 0.50%p의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 발신. 이에 최근 주가 상승, 채권금리 하락, 달러화 약세가 진행 중
- 이러한 현상은 '22년 12월 임금상승률 둔화가 나타나면서 그 동안 상승을 지속하던 서비스물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. 1/12일 발표될 '22년 12월 소비자물가 역시 상승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
- 시장에서는 과거에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오류가 있었음을 반영(Bannonckburn Global의 Marc Chandler). 연준 인사들은 자신들의 경고를 투자자들이 듣지 않기에 좀 더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있지만, 오히려 지금은 정책당국이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(Ed Yardeni) 존재
- 다만 일부에서는 향후 경기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, 적극적인 위험자산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(Goldman Sachs의 Maria Vassalou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보스턴 연은 총재, 2월 연준의 0.25%p 인상을 지지

- 콜린스 총재는 1/31~2/1일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의 0.25%p 혹은 0.50%p 인상을 전망. 다만 현 상황에서는 0.25%p를 예상한다고 첨언. 아울러 향후 통화정책 결정은 경제지표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평가

■ 미국 에너지정보청(EIA), '24년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

- 내년 원유 생산량이 일일 1280만배럴에 이르러 이전 최고치('19년 1230만배럴)를 넘어설 가능성. 한편 그 동안 금지되었던 베네수엘라 원유의 수입이 1/10일부터 재개되기 시작했으며, 이 또한 유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

■ 자산운용사 Jupiter,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%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

- 경기침체 현실화 및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가 시작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낼 수 있다고 분석. 특히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
- 한편 Barclays는 양호한 민간소비 등으로 미국 1/4분기 성장률 전망을 상향(0.0%→0.5%). 다만 2/4분기~4/4분기는 고용둔화에 따른 경미한 경기침체를 예상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충분한 금리인상으로 물가 목표 달성할 필요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금리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. 또한 향후 금리인상 관련하여 현실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,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직시해야 한다고 부연
-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정책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발언. 핀란드 중앙은행의 렌 총재도 향후 수차례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경기침체를 대비한 금리인하 여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

■ ECB, 역내 주요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. 경기침체 대비가 주요 원인

- 역내 주요 은행들의 '22년 3/4분기 부실채권 비율이 2.29%를 나타내 전기(2.35%) 대비 하락. 이는 향후 경기침체 도래 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. 다만 시장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평가

■ 일본은행 설문조사, '22년 4/4분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 상승

-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작년 4/4분기 1년 후 물가상승률 전망이 9.7%를 기록하여 3/4분기(8.5%) 대비 상승. 시장에서는 그 동안의 임금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, 일본은행이 현행 초완화 통화정책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금리인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12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2년 12월 소비자물가, 1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- 중국 '22년 12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의 긴축기조 유지,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 - Financial Times

(What if 2023 is not the reset that investors are pinning for?)

-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, 매파 기조를 유지한 연준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. 그러나 이미 시장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반영되었고, 이에 따라 세계 주가는 점차 회복세
-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다시 긴축기조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. 이에 일부에서는 완만한 경기침체보다 연준의 금리인상 재개를 시장의 위험요소로 거론

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, 잃어버린 10년의 위협이 고조 - Financial Times

(The threat of a lost decade in development)

-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강타한 후 러우 전쟁, 인플레이션 급등,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, 달러화 강세 등으로 취약국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증가. 이는 1980년대 남미 부채위기와 같은 '잃어버린 10년'으로 이어질 소지
- 불안 요인은 최근 G7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와 규모가 1970년대말~80년대초와 유사하다는 사실. 또한 달러화의 큰 폭 강세로 외화부채 상환부담이 급증했으며, 신용등급이 낮은 원자재 수입국의 외화차입 스프레드는 확대
- 저소득 국가의 부채위기는 동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소득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, 고소득 국가는 저소득 국가의 '자금조달의 급격한 감소→스프레드 확대→부채위기→신용도 하락'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

■ 중국,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여부는 소비가 관건 - 블룸버그

(China's Consumers Are the Key to Lifting 2023 Growth Above 5%)

- 중국의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4.9%(Bloomberg). 경제성장률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6%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확대가 필요.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감염이 곧 정점을 통과할 것이며 이후 가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. 이에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기대
- 이러한 전망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당한 규모의 가계저축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. 또한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. 일각에서는 현저한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부동산 규제 철폐 및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

■ **신흥국 주가의 상승세, 달러화 약세 및 원자재 가격 회복 등에 기인 - 블룸버그**

(The Rest of the World is Running With the Bulls)

- 최근 3개월간 신흥국 주가는 최저점 대비 20% 이상 상승하면서 '10년 이후 최대 랠리를 기록 중. 미국과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높은 상황. 이는 달러화 약세, 원자재 가격 회복, 중국의 코로나 정책 변화 등이 주요 원인
- 달러화와 원자재 가격은 역사적으로 긴 파동을 형성하는 특성을 보유. 이에 달러화 약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추세가 안착된다면 신흥국 주가의 상승 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중요한 고려 사항은 연준의 예상보다 이른 통화정책 전환 및 중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 여부. 향후 수 개월간은 이 가정을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신흥국 증시의 성과가 결정될 전망

■ **미국 달러화 약세, 여타 주요통화 자산의 낮은 수요 등으로 제한적일 소지 - 블룸버그**

(Goldman Sees Dollar's Dominance Driving Further Gains Ahead)

■ **미국 정치권, 중국경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유무역 강화할 필요 - 블룸버그**

(On China, Congress Is Its Own Worst Enem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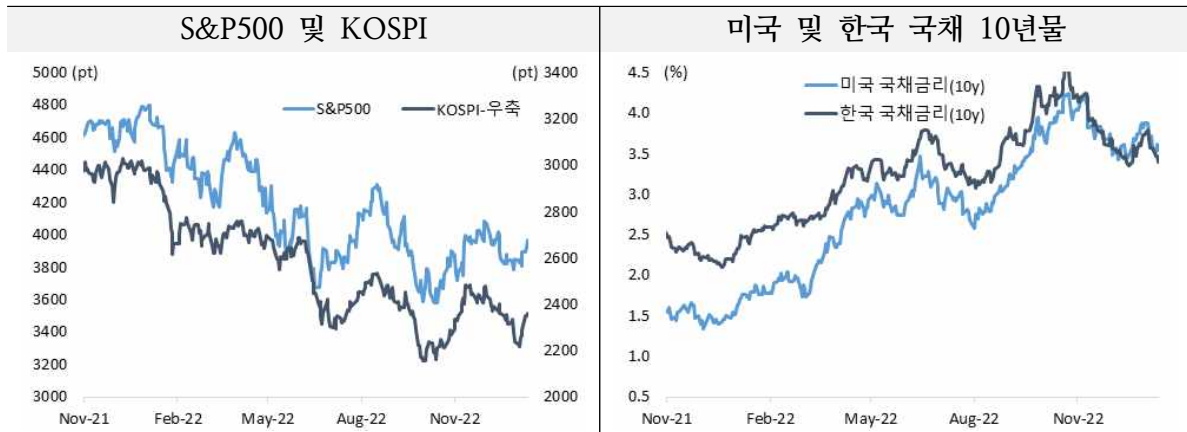
■ **유럽의 탄소국경세, 교역국과의 무역마찰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
(The EU's pioneering carbon border tax)

■ **세계의 플라스틱 수요,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 - 블룸버그**

(Why Can't Tesla Drive US Oil Demand Lower? Plastic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